

# 韓-美, 첨단산업 인력교류 본격화 연구개발, 해외연구자에 전면개방

## 韓-美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부, 6개 협력거점 구축해

50여 개 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STEM 분야 청년인력 교류 지원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산업인력Q,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자격Q, 16개 종목 현황·동향 수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1일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3분기에 공조냉동(4개 종목)과 기계설비(5개 종목), 승강기(3개 종목), 생산자동화(4개 종목) 분야 등 총 16개 종목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종목 필기시험에 연평균 약 5만6400명이 응시했다.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는 2018년 4227명에서 2022년 9698명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설비보전기사는 2018년 2122명에서 2022년 5003명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다. 또 공단은 2022년도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

인원 5만7442명의 ▷경제활동 유형 ▷종사 사업체 규모(재직자 한정) ▷성별 ▷연령대 ▷응시목적 등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에는 학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는 36.5%였다. 학생들은 승강기와 기계설비 분야의 자격취득을 선호했으며, 재직자들은 공조냉동과 기계설비 분야였다. 재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300명 미만 65.4%,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4.6%, 1000명 이상 20%였다. 응시 인원의 96.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2%, 10대 25.6%, 30대 13.5% 순으로 청년층 응시율이 높았다. 응시목적은 취업 44%, 자기개발 22.5%, 업무능력향상 13.8% 순이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성 있는 자격정보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특강 실시

노사발전재단, 온라인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평가 지원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인권과 환경 이슈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21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의 인사노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비교 분석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해하는 사회(S), 지배구조(G) 공시의 구체적 사례를 특강으로 실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기업의 ESG 공시율은 75.7%(151개 사)로 지난해 55%(111개 사)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정책과 운영방침의 수립을 비롯해 단계별 목표 정립을 통한 이행방안 로드맵을 구축하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 이슈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선언의 키워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5년간 541억 달해

멧돼지, 330억 어치 최대 피해

채소 121억·사과 77억 등 손실

재해보험에 4.9만여 건 접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

〈야생동물별 피해액〉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      | 멧돼지    | 고라니   | 꿩     | 까치    | 청설모 | 오리류   | 기타    |
|------|--------|--------|-------|-------|-------|-----|-------|-------|
| 2018 | 11,767 | 6,509  | 2,593 | 404   | 1,021 | 59  | 394   | 787   |
| 2019 | 13,746 | 8,910  | 2,158 | 297   | 1,279 | 47  | 140   | 915   |
| 2020 | 10,622 | 6,651  | 1,699 | 397   | 613   | 39  | 198   | 1,025 |
| 2021 | 9,349  | 5,629  | 1,452 | 306   | 814   | 25  | 341   | 782   |
| 2022 | 8,712  | 5,304  | 1,171 | 353   | 443   | 32  | 202   | 1,207 |
| 계    | 54,196 | 33,003 | 9,073 | 1,757 | 4,170 | 202 | 1,275 | 4,716 |

/어기구 의원실

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

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담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국 600여 개 동물병원, 추석 연휴도 운영

농식품부, 누리집에 정보 게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누리집에 22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 명칭과 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

여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선정

2025년 예정… 28년 만에 개최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이 20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이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지 발표는 뉴욕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 사무소에서 고위급 면담 후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 환경행사 유치는 지난 199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환경의날(매년 6월5일)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각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2025년 환경의 날 행사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다음 해에 개최된다”며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개최장소 등 세부행사 내용은 향후 유엔환경계획 측과 협의를 통해 2024년 중 결정된다.

임거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 관계가 환경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보전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